

배포 일시	2022. 11. 30.(수)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4016)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044-201-4018)
			사무관 유찬호 (044-201-3998)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30일 17시 기준 상황

□ 집단운송거부 동향

- 오늘 전국적으로 조합원 약 6,500명(전체 조합원의 30%)이 17개 지역 160여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 번복 중, 이는 전날과 유사한 규모
- 10시경 인천 신항대로에 못 700여개가 비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항만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조치 시행
- 14시경 부산신항 앞에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을 향해 조합원 1명(화물연대 지부장)이 마이크를 던졌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됨

□ 업무개시명령 관련 현황

- (조사현황) 금일 14시 기준, 현재까지 조사 대상 201개사 중 78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40개사에 운송차질이 발생하였음

현장조사 완료 운송사(합계)	운송 차질	정상운송	화주 미요청*
78개사	40개사	18개사	20개사

* 운송업체에 대한 화주의 운송 요청 자체가 없었던 경우

- 그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1개사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발부하였으며,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개사에 대해서는 거부 차주 445명 명단을 확보하여 명령서를 교부하였고, 16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완료함

*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차주)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에게 문서를 교부 가능

○ (불법주차차량 적발) 단양 시멘트 공장 현장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 9대를 적발하고, 집단운송거부 조사개시통지서를 부착

○ (업무복귀현황) 어제 운송개시명령을 받은 15개사 중 8개사는 오늘 업무에 복귀하여 운행하였다고 확인(7개사는 확인 불가)

○ (개인정보)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에서 ‘차주의 주소지를 요구하고 운송사가 이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조사관들에게 해당사항을 안내

□ 물류 및 산업 동향

○ (항만) 오늘 10시~17시까지의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42%(25(금): 28%)으로, 부산항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컨테이너 장치율 및 반출입량 추이(당일 10시~17시) >

구분	평시 ('22.10)	11.24. 17시	11.25. 17시	11.26. 17시	11.27. 17시	11.28. 17시	11.29. 17시	11.30. 17시
장치율 (평시대비 %)	64.5	64.2	63.9	63.7	62.4	62.4	62.8	63.1
컨테이너 반출입량 (TEU, 평시대비 %)	36,655	14,695 (40%)	10,451 (28%)	6,929 (19%)	2,788 (8%)	11,928 (33%)	13,630 (37%)	15,490 (42%)

- 부산항의 경우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전일 17시 ~ 당일 17시 기준)은 27일(일)에 평시대비 18%, 28일(월)에 33%까지 하락하였으나, 어제는 56%까지 회복하였고, 오늘은 69%까지 상승하였음

< 부산항 컨테이너 일일 반출입량 추이, 단위: TEU >

전체 (전일17시~당일17시)	평시 (22.10)	11.24.(목)	11.25.(금)	11.26.(토)	11.27.(일)	11.28.(월)	11.29.(화)	11.30.(수)
반출입량 (평시대비비율)	45,964 (100%)	58,912 (128%)	23,219 (51%)	17,367 (38%)	8,342 (18%)	15,356 (33%)	25,958 (56%)	31,674 (69%)

- 다만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건설) BCT 운송 횟수(1,731회)는 어제(808회)에 비해 2배 가량 증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멘트 운송량*(4.5만t)도 어제(2.1만t)의 214% 수준으로서 업무개시명령(11.29 발동) 이후 BCT의 운송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어제(2.1만t)는 평시(20만t/일) 대비 11%였으나, 오늘 평시 대비 23%로 상승

- 그러나 레미콘의 경우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7.3%(4.1만m³) 생산되어 62개 건설사의 전국 1,143개 현장을 기준 시, 59%(674개)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

□ 기타 대응상황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복귀를 요청
- 또한, 오후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계 관계자와 입주예정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 기존에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 운송을 임시로 허가하여 정유 수송력 강화를 추진(금일 지침 전달)

- 오늘부터 비노조원 운송자에 대한 화물연대의 피해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 비조합원 운전자는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 (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즉시 신고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붙임 1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1.30. 17:00 기준)

(단위 : TEU, %)

구분	화물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능력 (A)	장치량		장치율(%)			금일 10사-17 시	금일 10사-17 시	금일 10사-17 시	전일 10사-17 시	평시('22.10월 동시간대) 반출입량		
		금일 17시 (B)	전일 (17시)	금일 17시 (B/A)	전일 (17시)	평시 (22.10)	반입 (C)	반출 (D)	반출입 (C+D)	반출입 (E)	반입	반출	합계
합 계	941,283	593,951	591,442	63.1	62.8	64.5	8,247	7,243	15,490	13,630	19,448	17,207	36,655
부산항	592,335	394,715	392,872	66.6	66.3	68	6,304	5,551	11,855	10,442	10,984	9,408	20,392
인천항	112,921	83,747	84,614	74.2	74.9	76.3	1,704	1,477	3,181	2,596	4,339	3,787	8,126
광양항	110,856	68,807	68,486	62.1	61.8	61.4	15	15	30	15	2,260	2,365	4,625
평택· 당진항	39,281	19,078	19,199	48.6	48.9	59.3	74	49	123	308	860	746	1,606
울산항	29,464	15,368	14,172	52.2	48.1	55	44	31	75	80	614	514	1,128
군산항	8,006	1,238	1,187	15.5	14.8	13.3	20	19	39	28	80	78	158
마산항	3,700	193	207	5.2	5.6	5	4	0	4	6	44	29	73
대산항	8,255	2,170	2,066	26.3	25.1	26	0	0	0	0	87	82	169
포항항	24,041	7,142	7,140	29.7	29.7	26	21	20	41	40	38	57	95
동해항	1,150	350	350	30.4	30.4	26	0	0	0	0	25	25	50
목포항	8,022	471	479	5.9	6	5	39	68	107	108	106.8	104.8	211.6
경인항	3,252	672	670	20.7	20.6	22	22	13	35	7	10	11	21

붙임 2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 (면제기간) '22. 11. 24(목)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 (면제구간) 고속도로 **쏘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지자체 민자도로 제외)
- (대상차량)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 (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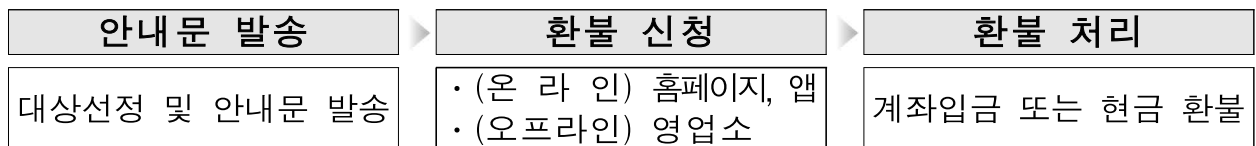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쏘 영업소** (367개소)
-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통행료 환불

-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환불절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중앙수송대책본부 044-201-4802~03

붙임 3**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No. 예)1-23 (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No.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 면제구간 : 모든 고속도로(재정·민자 고속도로)
- 이용방법 :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허가 기준

-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한 없음)
-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
- (허가신청 기간) '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 허가 절차

- (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 (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허가 혜택

-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 (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붙임 5**운송거부자 신고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성명	사무실 연락처	e-mail주소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최용민 주무관	044-201-4018	skrkwk11@korea.kr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	박진원 주무관	02-2133-4094	freedom@seoul.go.kr
경기도 물류항만과	강동주 주무관	031-8008-3864	rallyxyzgx57@gg.go.kr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과	김태경 주무관	051-888-7632	ktkim97@korea.kr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홍형표 주무관	032-440-3832	0326hhp@korea.kr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이미림 주무관	053-803-4041	yml4832@korea.kr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김 건 주무관	062-613-4092	gun1424@korea.kr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김태자 주무관	052-229-4114	taeyeowoo@korea.kr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박준상 주무관	042-270-5832	foolmoon@korea.kr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송창훈 주무관	041-635-2844	chsong1224@korea.kr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장은수 주무관	043-220-4265	eielectro@korea.kr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강성진 주무관	061-286-7461	gsj83@korea.kr
전라북도 교통정책과	김대환 주무관	063-280-3621	yotta@korea.kr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김재훈 주무관	055-211-4144	senatus@korea.kr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이희천 주무관	054-880-2667	yi2000@korea.kr
강원도 교통과	함석영 주무관	033-249-3544	hsy3415@korea.kr
제주도 교통정책과	김보윤 주무관	064-710-2465	kbv6089@korea.kr